기업의 운명을 좌우, 지구온난화 대책을 이끄는

일본 사회환경교육의 A to Z

2009년 일본 '지구의 날' 모습

일본은 최근 5년 동안
기업체 환경교육율이 큰 폭으로 상승,
기업체의 81%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저탄소 사회를 향한
일본 기업체들에게 환경교육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화 되어 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버린 일본 환경교육의 현황&변화

일본에서는 92년 리우 회의[1]를 계기로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여, 종래의 「공해대책법」을 대신하여 「환경기본법」의 제정(1993년)이라는 형태로 환경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동법 제25조에는 '환경 보전에 관한 교육 · 학습' 등에 대한 환경교육의 내용이 법률에 처음으로 명기되었다. 또한, 제26조에는 '민간단체의 발전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는 내용을 제창하였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중앙환경심의회는 '지금부터 환경교육 · 환경학습' (99년)이라는 과제의 환경교육 지침을 정리하였다. 이것은 리우회의 이후 환경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SD[2])로 가는 세계적 흐름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환경보전 중심의 '협의의 환경교육' 에서 지구환경문제와 환경정의 등이 거론되는 '광의의 환경교육' 으로의 의식 전환을 촉구하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일본 환경교육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보고였다. '연결' 이라는 키워드로 모든 주체와 정책, 장(場,Field),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연결,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제시하였다.

또한, 리우회의를 계기로 일본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환경기금(1999년)」[3]은 환경교육을 하려는 NGO와 시민들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전에는 NGO 활동은 자체예산으로 꾸려져 예산과 사회적

오 창 길 | 한일환경교육정보발전소 대표
(사)환경교육센타 이사
동경학예대학 대학원 환경교육전공(교육학 석사)
tel.070-8621-5737 | doyosae88@hanmail.net

영향력이 대단히 빈약하였다. 그러한 상황아래서 지구환경기금은 NGO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일정의 역할을 발휘하였다.

이미 6년전에 제정된 '환경교육추진법'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2002년)에서 세계 각국은 일본이 제안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년(이하, 교육 10년)」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이 회의 이후 환경기본법 제 25조, 26조를 근거로 하여 의원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 추진에 관한 법률(환경보전활동 · 환경교육추진법)」이 2004년 시행되었고, 기본방침에는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이 녹아들어 갔다. 동법은 환경성 · 문부과학성 · 농림수산성 ·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성의 5개성이 소관하며, 종래에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정부부처 환경교육에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각 부처 간의 연결도 맺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교육10년」의 추진을 위해 내각과 관방을 중심으로 한 8개성[4]이 관계정부부처 연락회의를 구성하고 국내 실시계획을 2006년에 작성하였다. 종합적인 환경교육인 ESD를 통하여 새로운 환경교육의 조직이 급속이 넓어져갔다.

세계도 놀란 일본 기업환경 교육의 사례

세계가 지구 온난화 방지를 향해서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 삭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도 '환경대응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하이브리드차가 시장을 견인하고 가전업계도 에코 포인트 제도 등으로 에너지 절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이 경제활동에 끼치는 영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무게가 더해지고, 기업의 환경경영전략으로 떼어버릴 수 없는 테마가 되고 있다. 기업에게 환경은 이미 장신구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운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의 환경교육도 더 높은 단계로 이행해야 하는 단계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일본기업의 환경교육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환경성이 1991년부터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기업행동 조사」에서는 기업의 환경교육 실시 상황에 관한 조항을 2002년 조사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는 질문에 설문에 응한 기업 중 약 54%가 '예'라는 대답을 하였다(설문 회사수 2,967사, 유효회수율 46.4%). 2007년도의 같은 조사 결과에서는 그 비율은 약 81%에 이르고 있고 5년 동안에 약 27%가 증가하였다.(설문 회사수 2,819사, 유효회수율 43.5%) 이 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환경교육 실시가 5년간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다. 2007년의 81%라는 숫자가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는 기업환경교육은 상당히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환경 경영 시스템의 도입면에서 ISO14001 인증 취득 기업은 1996년의 인증 평가 제도의 도입이후 상승세로 증가하고 있어, 2009년 3월 시점으로 20,799개의 기업과 단체가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런 저탄소사회를 향한 일본기업에게 기업환경교육이라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지구온난화 대책일 것이다. 이글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4개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일본기업의 환경교육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전의 환경정화활동이나 강연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참여와 가정, 지역사회로 넓혀져 가고 있는 기업환경교육을 살펴보며 한국의 기업 환경교육도 다시 한 번 돌아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일본 기업체에서는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가정 · 지역사회로 범위가
넓혀져 가고 있다.

1) 리우 회의(Rio Summit)의 공식명칭은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 연합 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며 Earth Summit이라고도 불린다. 1992년 6월 개최
2)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약칭 ESD)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위한 발상으로 행동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3) 독립행정법인 환경재생보전기구가 운영하며 2008년도에는 7억 2210만 엔이 조성되었다.
4) 환경교육추진법 소관의 5개 부처이외에 내각부, 총무성, 외무성이 참가

1. NEC社의 '논농사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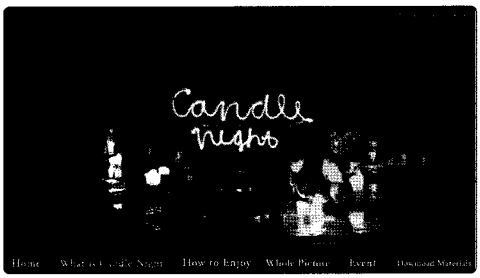
NEC[5]가 사원 환경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바라키현의 카스미가우라 호수주변에서 「논농사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2004년도이다. 「논농사 프로젝트」는 모내기, 풀베기, 벼 베기, 탈곡, 주조 등과 같은 농사활동이 중심이며 년 6회 실시하고 있다.

NEC의 「논농사 프로젝트」 일련의 작업풍경

자연 속에서 직장 일을 잊고 참가하는 행사이며, 매회 참가자는 약 150~200명이 참여한다.
모내기나 벼 베기 행사는 제일 인기가 있으며 현재까지 참가자는 3,600명에 달한다. 기획과 운영은 카스미가우라 호수의 보전 활동을 하는 NPO법인 「아사자 기금」에서 담당한다.
「논농사 프로젝트」에는 환경보전과 지역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NEC가 사용했던 논은 휴경지였던 곳이었는데 이 논을 재생시켜 카스미가우라 호수 정화에 공헌하게 되었다. 또, 그 지역의 주조회사, 된장공장, 농가 등과 협력하여 지역 전통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서, 환경과 경제가 상호 공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2. 후지제록스社의 '촛불 나이트 프로젝트'

후지제록스는 가족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200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활동은 직원 가정에서 환경보전에 관심을 갖고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첫째, 전기 사용량 삭감 2주일 작전 둘째,「KIDS ISO프로그램」 참가 등이 있으며 직원이 스스로 참가하도록 권장하며 매년 300~400명이 참가한다. 직원들이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전기계량기를 매일 확인하여 사용량조사를 하여 삭감에 힘을 쏟는다. 참가한 가정의 전력사용량은 이전과 비교하여 약 7% 줄어들었다고 한다. 2005년도부터는 사무실에서도 캠페인을 실시하여 일상적으로 에너지 절약 활동을 철저히하고, 에너지 절약 아이디어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를 모집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자사의 간판과 광고탑을 소등하고 '블랙 조명 행사' 등을 전개했다.



후지제록스의 「촛불 저녁프로젝트」 홈페이지

후지제록스는 2007년도부터 사회공헌활동 분야로 확대되었다. 전등을 끄고 양초의 불빛으로 저녁을 보내는 「100만 인 촛불 나이트」[6]의 참가와 지구온난화 신문의 배포, 자연관찰조사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여 사내에서 약 6,600명이 참가했다. 활동에 참가하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제도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회사 인트라넷에 알리고, 포인트가 많은 직원은 사내 표창을 하였다. 후지제록스 기타큐슈는 전 회사원에게 아로마 초를 배포하여 가족들과 「촛불 나이트」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 후지제록스 홍콩은 「촛불 나이트」의 실시에 맞춰서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3. 간사이 전력社의 'Kids' ISO 14000프로그램'

"이산화탄소 환산하여 13억 4,100만톤, 기준해인 1990년과 비교하여 6.4% 증가"
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2006년도 일본 온실효과 가스 총배출량이다. 1990년과 비교해서 산업부문

이 5.6% 삭감을 달성했지만, 업무부문이 41.7%, 가정부문은 30.4% 늘어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간사이전력[7]에서는 1998년도부터 사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10만명 에코 패밀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냉방은 28도, 난방은 20도」라는 캠페인과 환경가계부운동 등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고 있다. 2005년 직원자녀 약 600명을 대상으로 「Kids' ISO 14000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환경의식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전기 · 가스등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량과 가연쓰레기 배출량의 데이터를 줄이는 등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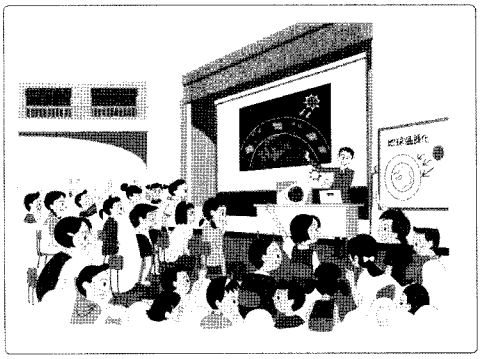
이 활동은 사내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전파하기 위하여 2006년도 시작한 것이 「칸사이전력 E 키즈 클럽」[8]이다. 지역의 초등학교 5, 6학년 200명이 참여 하였다.

「칸사이전력 E 키즈 클럽」수료식 모습

「칸사이전력 E 키즈 클럽」 프로그램으로는 7월 창단식과 함께 키즈ISO 설명회, 네이처 게임을 하고, 8월에는 키즈 ISO 입문편 실시, 9월에는 남항발전소와 쓰레기처리공장 견학. 11월에는 숲 체험과 간벌체험을 실시하고, 3월 수료식에서는 「에코 마이스터(Meister)」 인증서를 주며 수료식을 갖는다. 매년 같은 시기에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4. 샤프社의 '태양광 아카데미'

기업이 환경교육의 사회적 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우선순위는 역시 청소년 일 것이다. 태양전지와 액정TV제품으로 환경선진 기업의 이미지를 확립한 샤프도 청소년대상 환경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샤프는 2007년 7월 '닛케이BP 환경경영포럼' 이 발표한 「제8회 환경 브랜드 조사 (2007년)」에서 전체 4위의 평가를 받고, 전기회사 부문에서는 선두에 올랐다. 샤프는 NPO법인 「기상 캐스터 네트워크」와 함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2시간 프로그램은 1교시 지구 온난화 수업, 2교시 재활용과 신에너지(태양광발전) 실험으로 구성되어있다.



샤프의 「태양광 아카데미」 수업장면

샤프가 '환경 출장수업' 을 시작한 것은 2001년도이다. 2004년도부터 좀 더 확대되어 태양광발전 시스템 출장 수업인 「태양광 아카데미」를 시작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샤프와 「기상캐스터 네트워크」는 2006년 10월부터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연간 530개교의 3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후 참가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 사후지도로 계속적인 환경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5) 닛폰 전기 주식회사는 스미토모 그룹의 전자 기업이다. 약칭은 NEC로 알려져 있다.
6) http://www.candle-night.org/jp/
7) 1951년에 설립된 일본의 민간 전기공급회사이며, 총자산은 6조2,434억 엔이며 종업원 수는 22,106명이다.
8) http://www.kepco.co.jp/kankyou/ekids/report2008/index.html